

부모의 방임행동, 아동의 비합리적 신념이 아동의 분노표현방식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Parents' Neglect Behavior and Children's Irrational Belief on Children's Anger Expression Style

전북대학교 아동학과
박사과정 황 연 덕
부 교 수 이 진 속

Department of Child Studie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Doctoral Student : Yeon Dug Hwang

Associate Professor : Jin Suk Lee

◀ 목 차 ▶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 결과

I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parents' neglect behavior and children's irrational beliefs on children's anger expression style. The participants were 379 5th and 6th grade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Children tended to perceive higher levels of their parents' cognitive and emotional neglect than physical and home environmental neglect. Boys perceived higher levels of their parents' physical, supervisory and home environmental neglect than girls, and girls showed higher level of excessively self-expecting belief than boys.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the parents' neglect behavior, their child's irrational beliefs and anger expression style. A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parents' physical and cognitive neglect were predictors of children's anger control. Children's excessive apprehension and avoidance beliefs were the best predictors of children's anger-in, while children's deterministic belief was the best predictor of children's anger-out. Parents' physical neglect behavior appeared to be powerful predictor.

주제어(Key Words) : 부모의 방임행동(parents' neglect behavior), 아동의 비합리적 신념(children's irrational belief), 아동의 분노표현방식(children's anger expression style)

I. 서론

성장과 발달에 긴 기간이 소요되는 인간발달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부모 자녀관계의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 아동이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적 형질 뿐 아니라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사고, 감정, 행동체계의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발달, 행동문제와의 관련성을 강조한 연구결과들은 부모의 정서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아동의 정서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중요시하고 있다. 부모의 양육행동 중 방임적 양육은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교육적 성취 등 아동발달 과정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예컨대, 부모의 방임적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소미강, 2008), 아동이 부모의 양육행동을 거부, 제재적, 허용, 방임적으로 지각할수록 행동문제의 내면화 경향이 더 많이 보였다는 보고(김문정, 2003) 등은 부모의 무관심과 방임이 아동의 정서 및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시사하고 있다.

방임적 부모의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이는데, 신체적·정서적 방임수준이 높으면 아동의 성장 발육이 저해되기도 하고, 애착의 손상과 사회화의 결핍, 지능발달의 문제 등이 생긴다. 높은 수준의 방임이 아니라도 부모의 애정결핍은 아동에게 만성우울감과 버려진 느낌의 성격적 특성을 가지게 하며, 대인관계에 있어서 미숙한 사회적인 기술을 초래하여 학교생활의 부적응이 나타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00; 안동현, 장화정, 이영애, 2000; DiLeonardi, 1993). 특히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행동 및 방임을 경험한 아동들은 분노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예컨대,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와 방임이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조옥자, 현온강, 2005) 부모의 방임 및 부적절한 양육행동이 아동의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권효정, 2006; 오진환, 2003; 홍경자, 채유경, 이명자, 2000). 즉 부모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부적절한 양육환경에 처한 아동들은 분노를 적절히 표현하는 방법을 가정 안에서 학습하지 못해 자신의 분노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고 분노를 억압하거나 혹은 분노를 폭발시키는 경향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방임의 정의를 보면 아동발달시기에 따른 발달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도록 위협받는 환경, 행위 등을 말하는 것으로 아동에 대한 방임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Faller, 1981; Hurt & Fankel, 2002; 황옥경, 2008, 재인용) 이에 따라 방임의 유형을 일반적으로 정서적, 신체적, 인지적, 지도·감독 방임으로 분류하고 있다. 방임은 신체적 학대와 달리 만성적이며 지속적인 특성을 가지고(Dubowitz, 1994), 아

동학대의 다른 유형들의 결합에 비해 더 나쁘고 악영향을 끼친다(Daniel, 2000; Dubowitz, 1994). 더불어 다른 위험상황과 공존해서 발생하는 까닭에 아동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Kert, Black, & Krishnamumar, 2000; 황옥경, 2008, 재인용).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아동의 방임은 다른 유형의 아동학대보다 그 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보고되고 있다.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방임 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 2006)에 의하면, 방임이 22%로 나타났고, 인지적, 정서적, 지도·감독, 가정환경방임, 물리적 방임의 순으로 방임이 나타났다. 또한 아동학대 사례 가운데 단일유형으로는 아동방임(35.6%)이 가장 높고, 지난 5년 동안 매년 30%이상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계속 증가하였다(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9). 이는 아동에 대한 방임이 어떠한 외적환경이나 특정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가정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임을 시사한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아동방임이 상당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고, 아동발달에 악영향을 끼치는 위험요인임을 고려할 때 아동방임에 대한 연구는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방임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아동방임 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 2006;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6; 이재연 외, 2000)와 아동방임과 정서 및 적응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권효정, 2006; 김완선, 1996; 송미령, 2005; 오진환, 2003; 조옥자, 현온강, 2005; Spaccarelli & Kim, 1995) 등이 주로 이루어져왔다. 예컨대, 부모의 정서적 방임은 아동의 학교적응과 자아탄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송미령, 2005),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와 방임이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을 떨어뜨리고 우울성향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조옥자, 현온강, 2005)를 보고하였다. 또한 아동이 지각한 학대 및 방임경험과 분노통제는 부적상관이 있고 분노표출과 분노억제는 정적상관이 있으며(권효정, 2005), 학대경험이 있는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분노의 표출정도가 높고 분노의 조절정도는 더 낮게 나타난 연구(오진환, 2003)들은 부모의 방임이 아동의 분노표현방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이들 선행연구들은 방임을 소극적인 개념의 아동학대의 한 유형으로 보거나 혹은 방임을 단일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임유형과 아동의 분노표현방식간의 관련성을 직접 규명하지는 않고 있다. 또한 신체적, 성적 아동학대와 같은 외현화된 형태가 아닌 방임이 지닌 일상적인 속성으로 인해 아동방임에 관한 연구는 다른 유형의 아동학대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아동이 어떤 행동을 배우고 모방하는 과정에 있어서 인지과정과 인지적 틀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발견되었다(Beck, 2000). 만약 사건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주위 환경으로부터 단서를 왜곡하거나 사건의 원인을 잘못 귀인

하는 경우, 인지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비합리적 신념이란, '외부자극의 선택적 지각, 해석, 저장하는 기능의 구성체이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심층심리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자기 자신, 타인 혹은 세상에 대한 절대적, 완벽주의적이며 융통성 없는 신념'으로서, 이 신념이 위배되면 극단적이고 과도한 정서경험이 초래되므로(서수균, 2004; 용은영, 2009, 재인용)아동이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 신념은 아동의 정서·행동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서수균, 2004; Beck, 2000). 국내의 선행연구들에서 비합리적 신념과 분노, 분노표현방식과의 관련성을 보고하며 비합리적 신념이 높을수록 분노수준이 높아지고 분노표현방식은 분노억제와 분노표출의 역기능적인 방식으로 표현함을 밝히고 있다(고경희, 2001; 권석만, 2006; 서수균, 2007; 용은영, 2009; 윤수미, 2005; 채유경, 2001; Bernard & Cornan, 1999; Deborah, 1999; Lopez & Thurman, 1986).

비합리적 신념은 부모로부터 학습되어지고 모델링되어 아동에게 성격적으로 고착화된 부분이므로 아동발달에 필수적인 부분, 즉 적절한 물리적 환경과 인지적,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지 않는 부모의 양육이 일상화될 경우, 이는 아동의 긍정적인 사과의 틀을 형성하는데 방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들(권미화, 2006; 변영주, 1994; 양미숙, 2006; 정정숙, 2006; 정영미, 2009; 황애현, 2002)은 부모의 방임적이거나 처벌적인 양육방식이 아동의 비합리적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예컨대, 정영미(2009)의 연구에서는 과도한 기대와 간섭, 방치와 같은 부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비합리적 신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높은

비합리적 신념을 가진 아동은 부모의 양육행동을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으며(권미화, 2006), 중학생의 경우 개방적, 자율적인 양육행동보다 폐쇄적, 통제적인 양육행동이라고 지각할 때 비합리적 신념이 높았다(양미숙, 2006). 황애현(2002) 역시 비합리적 신념의 형성에 부모와 아동의 상호관련성이 있다고 하며 부모의 양육행동을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아동이 애정적, 자율적, 합리적이라고 지각하는 아동보다 비합리적 신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들을 살펴볼 때, 부모의 방임행동은 아동의 비합리적 신념과 유의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부모의 양육행동과 비합리적 신념, 혹은 분노표현방식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이루어졌으나 부모의 방임행동에 관한 연구는 다른 유형의 학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방임행동이 아동의 비합리적 신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부모의 방임행동유형과 아동의 분노표현방식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 역시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방임을 정서적 방임, 인지적 방임, 지도·감독방임, 물리적 방임, 가정환경방임 등 다차원적 요인으로 규정하고, 방임과 비합리적 신념, 그리고 분노표현방식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첫째,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방임행동, 비합리적 신념, 분노표현방식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분노표현방식에 미치는 부모의 방임행동, 비합리적 신념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 = 379)

변수	구분	빈도 (%)	변수	구분	빈도(%)
성별	남	191(50.4)	모의직업	비취업	141(37.2)
	여	188(49.6)		비전문직	149(39.3)
학년	5학년	177(46.7)		전문직	89(23.5)
	6학년	202(53.3)	고등학교	178(47.0)	
			대학교	163(44.3)	
형제수	1명	67(17.7)	대학원이상	33 (8.7)	
	2명	195(51.5)	모의학력	고등학교	215(56.7)
	3명	117(39.9)		대학교	142(37.5)
				대학원이상	22 (5.8)
가족형태	핵가족	289(76.3)	부부싸움	거의 싸우지 않는다	252(66.5)
	확대가족	29 (7.7)		한달에 1-2번	45(11.9)
	한부모, 조손가족	55(16.1)		일주일에 1-2번	9 (2.4)
거의 매일				2 (0.5)	
부의연령	30대	41(10.8)	부부간폭력	거의 때리지 않는다	348(91.8)
	40대	294(77.6)		일년에 1-2번	20 (5.3)
	50대이상	44(11.6)		모의연령	한달에 1-2번
30대	116(30.6)	일주일에 1-2번	4 (1.1)		
					40대
모의연령	30대	116(30.6)	50대이상	15 (4.0)	
	40대	248(65.4)			
	50대이상	15 (4.0)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초등학교 5, 6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 379명이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아가 191명, 여아가 188명이고, 5학년 177명(47%), 6학년 202명(53%)이었다. 아동들의 형제수는 2명이 51.5%, 3명은 39.9%이며, 아버지의 학력은 대졸163명(44.3%)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이 과반수로 나타났다(56.7%). 부와 모의 연령은 40대가 77.6%, 65.4%로서 대부분이었다. 모의 취업은 비취업이 37%, 비전문직 39%, 전문직은 23.5%로 나타났다.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76.3%, 한 부모 및 조손가정이 16.1%이다. 아동에게 부모님이 자주 싸우는지 질문한 결과, '거의 싸우지 않는다'가 66.5%, '일년에 1-2번'이 18.7%, '한 달에 1-2번'은 11.9%로 나타났으며, 부모님의 폭력이 발생하는 정도에 대해서는 '거의 때리지 않는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으며(91.8%), '일년에 1-2번'이 5.3%, '한달에 1-2번이상'이 2.9%로 소수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방임행동 척도, 비합리적 신념 척도, 분노표현방식 척도이다.

1)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방임행동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방임행동 척도는 Straus 외(1995)가 개발하고 타당도를 검증한 다차원적 방임행동척도(Multidimensional Neglectful Behavior Scale)를 국가인권위원회(2006)에서 번안하고 예비조사를 거쳐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수정된 척도는 정서적 방임, 인지적 방임, 지도·감독방임, 물리적 방임, 가정환경 방임 등 5개 하위척도 총 4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의 방임 행동에 대한 각 문항에 대한 아동의 반응은 5점 리커트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의 5점 ~ '항상 그렇다'의 1점)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정적 문항은 역채점하여 각 문항의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에서 아동이 부모의 방임을 많이 경험하였음을 의미한다. 각 하위요인의 내용을 살펴보면 '물리적 방임'(physical neglect)은 아동에게 적절한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고 위험·불결한 환경에 방치하고, 아동의 건강상태를 체크하지 않는 것과 의료행위를 제공 않는 것을 의미한다. '정서적 방임'(emotional neglect)은 아동에게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무관심한 것으로 즉, 애정적 표현이나 지지, 칭찬을 해주지 않거나 아동의 학습 성과물이나 놀이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지도·감독 방임'(supervisory neglect)은 아동에 대한 부적절한 보호, 부정적

행동에 대한 묵인으로 아동을 혼자 두거나, 양육자와 함께 있지 않는 시간에 어디 있는지 혹은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거나 체크하지 않는 것이며, 아동의 비행이나 잘못된 행위를 그냥 방치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인지적 방임'(cognitive neglect)이란 아동의 학습활동이나 취미, 여가에 관심을 두지 않고 아동과 숙제 또는 독서 등의 시간을 보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가정환경방임'(home environmental neglect)은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음주상황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각 문항의 내적 신뢰도를 보면, 국가인권위원회(2006)는 전체 척도의 신뢰도를 Cronbach's $\alpha = .92$ 로 보고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Cronbach's $\alpha = .93$ 의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하위요인 별 내적신뢰도는 물리적방임 $\alpha = .82$, 정서적방임 $\alpha = .83$, 인지적 방임 $\alpha = .84$, 지도·감독방임 $\alpha = .77$, 가정환경방임 $\alpha = .56$ 로 나타났다.

2) 비합리적 신념

본 연구에서 사용한 비합리적 신념 척도는 성인용 비합리적 신념 척도를 이태현(2004)이 초등학교생대상으로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30문항으로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다한 자기기대 신념 9문항, 이분법적 신념 6문항, 결정론적 신념 6문항, 과잉염려 및 회피 신념 6문항, 과잉의존신념 3문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가 낮은 '이분법적 신념'과 '과잉의존 신념'을 제외한 3개 하위척도(21문항)만을 사용하였으며 5점 리커트 척도('전혀 아니다'의 1점 ~ '매우 그렇다'의 5점)로 각 하위요인 문항의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하위요인별 비합리적 신념이 높음을 의미한다. 각 하위요인의 내용을 살펴보면, '과다 자기기대 신념'(excessively self-expecting belief)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아야 한다는 욕구와 모든 분야에서 완벽하게 유능하고 성취적이어야 한다는 생각,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곧 파멸이라고 생각하는 좌절적 반응 등이 포함된다. '결정론적 신념'(deterministic belief)은 행복과 불행은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으며 외부 환경 때문이라는 생각, 과거의 경험이나 사건이 현재를 좌우하고 과거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무력감을 의미한다. '과잉염려 및 회피 신념'(excessive apprehension and avoidance belief)은 두렵거나 어려운 일을 지나치게 걱정하는 과잉불안 염려와 어려움이나 책임을 피하는 것이 더 쉬운 일이라고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2$ 를 나타냈으며, 각 하위요인 별로 과다 자기기대 신념 $\alpha = .74$, 결정론적 신념 $\alpha = .58$, 과잉염려회피 신념 $\alpha = .67$ 의 신뢰도를 나타냈다.

3) 분노표현방식 척도

분노표현방식의 척도는 Spielberger, Krasner와

Solomon (1988)의 분노표현척도(Anger Expression Scale: AX)를 바탕으로 전점구(1991)가 문화적, 언어적 맥락을 고려하여 번안한 척도를 김백영(1997)이 초등학교 수준에 맞게 개정한 검사지를 사용 하였다. 원래 하위척도는 상대분노, 특성분노, 분노억제, 분노표출, 분노통제 등 5가지로 구성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분노표현방식을 알아보고자 분노억압(8문항), 분노표출(8문항), 분노조절(8문항) 등 총 24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각 요인의 내용을 보면 분노억압(anger-in)은 분노의 감정을 자제하거나 억제하는 반응이며, 분노표출(anger-out)은 주어진 환경에서 어떤 대상에게 개인적으로 자주 분노를 표현하는 반응이고 분노조절(anger control)은 개인의 분노 표현을 조절하려는 반응이다. 4점 리커트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의 1점 ~ ‘항상 그렇다’ 의 4점)로 각 문항의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Cronbach’s $\alpha = .69$ 이고, 분노표출은 $\alpha = .72$, 분노억압 $\alpha = .56$, 분노조절 $\alpha = .76$ 으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서울과 전북지역의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취지를 안내하고 연구 협조 의사를 밝힌 일부 학교를 중심으로 질문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학교 선정 시 중상층지역과 저소득층지역이 골고루 포함되도록 안배하였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학급은 서울시내 1개교 4학급, 전라북도 전주시 2개교 6학급, 익산시 1개교 4학급 총 4개교 14학급이었다. 본 조사는 2010년 5월 20일부터 6월 3일까지 2주간 시행되었다. 본 연구자가 각 학교를 방문하여 해당 학급의 담임교사에게 질문지의 내용과 실시방법에 대한 설명을 한 다음, 각 반의 담임교사가 해당 학급의 아동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총 41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고 406부가 회수되었으며, 회수된 질문지 중 응답내용이 부실한 질문지를 제외하고 총 379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4. 통계 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for windows 12.0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평균치 및 백분율을 산출했고, 문항의 신뢰도를 위해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아동의 성별에 따른 부모의 방임행동지각과 비합리적 신념, 분노표현방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하였다.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방임행동과 비합리적 신념, 분노표현방식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노표현방식에 미치는 관련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일반적 경향

1) 부모의 방임행동, 비합리적 신념, 분노표현방식의 일반적 경향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방임행동, 아동의 비합리적 신념, 아동의 분노표현방식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방임 평균은 1.79점~2.87점으로 나타나 아동은 부모의 방임을 평균적으로 ‘가끔 있는 것’으로 지각하였고, 인지적 방임(M = 2.87)수준이 가장 높

<표 2> 부모의 방임행동과 아동의 비합리적 신념, 분노표현 방식의 일반적 경향 (N = 379)

변 인		평균	표준편차
부모의 방임행동	정서적방임	2.59	.77
	물리적방임	1.79	.59
	인지적방임	2.87	.86
	지도·감독방임	2.32	.71
	가정환경방임	1.94	.56
비합리적 신념	과다자기기대신념	2.96	.69
	결정론적신념	2.50	.72
	과잉염려회피신념	2.65	.78
분노표현 방식	분노조절	2.45	.60
	분노억압	2.23	.77
	분노표출	2.10	.56

<표 3> 성별에 따른 부모의 방임행동과 아동의 비합리적 신념, 분노표현 방식의 차이

변 인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부모의 방임행동	남자	2.66	.71	1.99
	여자	2.51	.82	
	남자	1.88	.58	3.15**
	여자	1.69	.58	
	남자	2.93	.78	1.41
	여자	2.80	.96	
비합리적 신념	남자	2.44	.66	3.42***
	여자	2.19	.74	
	남자	2.03	.55	3.19**
	여자	1.85	.54	
	남자	2.90	.68	-2.13*
	여자	3.04	.69	
분노표현 방식	남자	2.54	.68	.22
	여자	2.45	.76	
	남자	2.59	.73	.95
	여자	2.72	.82	
분노표현 방식	남자	2.50	.62	.10
	여자	2.42	.58	
	남자	2.25	.47	.37
	여자	2.21	.47	
분노표현 방식	남자	2.14	.59	.18
	여자	2.06	.54	

*p < .05, **p < .01, ***p < .001

〈표 4〉 부모의 방임행동과 아동의 비합리적 신념간의 상관관계

변인		부모의 방임행동				
		정서적방임	물리적방임	인지적방임	지도·감독방임	가정환경방임
비합리적신념	과다자기기대신념	-.05	-.10	-.08	-.13**	.02
	결정론적신념	.23***	.15**	.23***	.16***	.21***
	과잉염려회피신념	.14**	.20***	.16***	.09	.19***

** $p < .01$, *** $p < .001$

고, 정서적 방임($M = 2.59$), 지도·감독 방임($M = 2.32$)순으로 나타났다. 비합리적 신념은 2.5점에서 2.96점으로 보통 정도의 비합리적 신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다 자기기대 신념($M = 2.96$)의 수준이 가장 높았다. 분노표현방식의 평균은 분노조절이 2.45점, 분노억제는 2.23점, 분노표출은 2.1점으로서 응답범위(4점)를 고려할 때 중간수준이었다.

2)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

아동 성별에 따라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방임행동, 아동의 비합리적 신념, 분노표현 방식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표 3〉, 부모의 방임 요인 중 ‘물리적방임’ ($t = 3.15, p < .01$), ‘지도·감독방임’ ($t = 3.42, p < .001$), ‘가정환경 방임’ ($t = 3.19, p < .01$)과 비합리적 신념의 요인 중 ‘과다자기기대 신념’ ($t = -2.13, p < .05$)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가 여아보다 물리적 방임과 지도·감독방임수준, 가정환경방임 수준이 높았으며, 과다자기기대 신념 수준은 여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분노표현방식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부모의 방임행동과 비합리적 신념, 분노표현방식간의 관계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방임행동과 아동의 비합리적 신념, 분노표현 방식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변수의 하위요인과 각 변인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부모의 방임행동과 비합리적 신념간의 관계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방임행동과 아동의 비합리적 신념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부모의 ‘정서적방임’ ($r = .23, p < .001$), ‘물리적방임’ ($r = .15, p < .01$), ‘인지적방임’ ($r = .23, p < .001$), ‘지도·감독방임’ ($r = .16, p < .001$), ‘가정환경방임’ ($r = .21, p < .001$)은 아동의 비합리적 신념의

‘결정론적 신념’과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아동의 ‘과잉염려회피 신념’은 부모의 ‘정서적방임’ ($r = .14, p < .01$), ‘물리적방임’ ($r = .20, p < .001$), ‘인지적 방임’ ($r = .16, p < .001$), ‘가정환경방임’ ($r = .19, p < .001$)과 유의한 정적 관련성을 보였다. 부모의 ‘지도·감독방임’과 ‘과다자기기대 신념’은 약한 부적상관($r = -.13, p < .01$)이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부모의 방임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결정론적 신념과 과잉염려회피신념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부모의 방임행동과 분노표현방식간의 관계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방임행동과 아동의 분노표현방식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부모의 방임행동과 아동의 분노조절은 유의한 부적상관($r = -.24, r = -.30, r = -.30, r = -.27, r = -.19, p < .001$)을 보였다. 특히, 부모의 ‘물리적 방임’ ($r = -.30, p < .001$), ‘인지적 방임’ ($r = -.30, p < .001$)과 아동의 분노조절과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아동의 분노억압과 부모의 방임행동의 관계는 일부 영역에서 유의한 정적상관으로 나타났는데, 부모의 ‘정서적 방임’ ($r = .15, p < .01$), ‘지도·감독 방임’ ($r = .12, p < .05$), ‘가정환경방임’ ($r = .25, p < .001$)이 아동의 분노억압과 정적관련성을 보였다. 아동의 분노표출과 부모의 방임행동과의 관계 역시 $r = .12 \sim r = .26$ 의 유의한 정적상관으로 나타났다. 그 중 부모의 ‘가정환경방임’ ($r = .26, p < .001$), ‘정서적방임’ ($r = .22, p < .001$)과 아동의 분노표출과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부모의 ‘인지적방임’ ($r = .12, p < .05$), ‘물리적방임’ ($r = .15, p < .01$)과의 관련성은 약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방임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이 역기능적인 분노표현방식인 분노억압과 분노표출이 증가하고 아동이 분노를 조절하는 긍정적인 분노표현방식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표 5〉 부모의 방임행동과 아동의 분노표현방식간의 상관관계

변인		부모의 방임행동				
		정서적방임	물리적방임	인지적방임	지도·감독방임	가정환경방임
분노표현방식	분노조절	-.24***	-.30***	-.30***	-.27***	-.19***
	분노억압	.15**	.09	.08	.12*	.25***
	분노표출	.22***	.15**	.12*	.19***	.26***

* $p < .05$, ** $p < .01$, *** $p < .001$

〈표 6〉 아동의 비합리적 신념과 분노표현방식간의 상관관계

변인		비합리적 신념		
		과다자기기대 신념	결정론적 신념	과잉염려회피 신념
분노표현방식	분노조절	.07	-.11*	-.11*
	분노억압	.27***	.31***	.36***
	분노표출	.22***	.29***	.28***

* $p < .05$, *** $p < .001$

〈표 7〉 분노표현방식에 미치는 부모의 방임행동과 비합리적 신념의 영향력

	(상수)	분노조절		분노억압		분노표출	
		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β	t	β	t	β	t
부모의 방임 행동	물리적 방임	-.20	29.19***	-	9.56***	-	8.23***
	인지적 방임	-.19	-3.55***	-	-	-	-
	가정환경방임	-	-	.20	4.19***	.19	3.85**
비합리적 신념	과다자기기대신념	-	-	.15	2.80**	-	-
	결정론적신념	-	-	-	-	.17	3.03**
	과잉염려회피신념	-	-	.26	4.79***	.16	2.82**
		수정된 $R^2 = .11$ *** $F = 24.8, p < .001$ $DW = 2.1$		수정된 $R^2 = .175$ *** $F = 27.7, p < .001$ $DW = 2.03$		수정된 $R^2 = .135$ *** $F = 20.6, p < .001$ $DW = 2.05$	

** $p < .01$, *** $p < .001$, $DW =$ Durbin Watson

3) 아동의 비합리적 신념과 분노표현방식간의 관계

아동의 비합리적 신념과 아동의 분노표현방식의 관계를 알아 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아동의 비합리적 신념과 아동의 분노억압 ($r = .27, r = .31, r = .36, p < .001$), 그리고, 아동의 비합리적 신념과 아동의 분노표출($r = .22, r = .29, r = .28, p < .001$)과는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반면, 아동의 비합리적 신념과 아동의 분노조절의 관계는 부적상관으로 나타났는데, 아동의 '결정론적 신념' ($r = -.11, p < .05$)과 '과잉염려회피 신념' ($r = -.11, p < .05$)이 아동의 분노조절과 약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또한, 아동의 '결정론적 신념' ($r = .31, p < .001$), '과잉염려회피 신념' ($r = .36, p < .001$)은 아동의 분노억압과 상대적으로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고, 아동의 분노표출($r = .29, r = .28, p < .001$)과도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것은 아동의 비합리적 신념수준이 높을수록 분노억압과 분노표출행동이 높고, 아동의 결정론적 신념과 과잉염려 회피 신념이 높을수록 아동의 분노조절능력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3. 분노표현방식에 미치는 부모의 방임행동과 비합리적 신념의 영향력

아동의 분노표현방식에 미치는 관련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방임행동, 아동의 비합리적 신념의 하위영역을

투입변수로, 아동의 분노조절, 분노억압, 분노표출을 종속변수로 하여 단계적투입방식(stepwise method)에 의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6). 다중공선성 검증을 한 결과, 공차한계가 .10~.30이고 분산팽창계수(VIF)가 10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적다고 판단된다.

〈표 7〉에서 아동의 분노조절을 설명해 주는 변인은 부모의 '물리적방임' ($\beta = -.20, p < .001$)과 '인지적방임' ($\beta = -.19, p < .001$)으로 나타났으며, '물리적 방임'과 '인지적 방임'이 아동의 분노조절에 갖는 설명력은 총 11%로 나타났다 ($F = 24.8, p < .001$). 이는 아동이 부모의 '물리적 방임'과 '인지적 방임' 수준을 높게 지각할수록 아동의 분노조절능력이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아동의 분노억압의 경우 아동의 '과잉염려회피 신념'의 예언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beta = .26, p < .001$), 그 다음이 부모의 '가정환경방임' ($\beta = .20, p < .001$), 아동의 '과다자기기대 신념' ($\beta = .15, p < .01$) 순으로 나타났다. 종속 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17.5%였다($F = 27.7, p < .001$). 마지막으로, 아동의 분노표출에 대한 예측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부모의 '가정환경 방임' ($\beta = .19, p < .01$), 아동의 '결정론적 신념' ($\beta = .17, p < .01$), 아동의 '과잉염려회피 신념' ($\beta = .16, p < .01$)이 아동의 분노표출을 설명해주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분노표출에 대한 제 변인의 설명력은 13.5%였다($F = 20.6, p < .001$). 이러한 결과는 과거의 영향에서 벗

어날 수 없다는 무력감이나 외적환경의 영향력을 높게 지각하는 결정론적 신념이 높고, 과잉불안과 문제회피적인 신념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정내 폭력이나 음주상황에의 노출경험이 높을수록 아동이 분노를 억압하거나 아동이 외적으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경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인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방임행동과 비합리적 신념, 분노표현방식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방임행동과 아동의 비합리적 신념이 분노표현방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이 지각하고 있는 부모의 방임행동과 아동의 비합리적 신념, 분노표현양식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 방임의 평균수준은 중간보다 약간 낮은 '가끔 발생하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하위영역별로는 부모의 '인지적 방임'과 '정서적 방임'을 '자주 있는 것으로' 가장 높게 지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취미와 여가, 학습에 대한 부모의 관심부족과 아동과 함께하는 시간의 부족과 같은 인지적 방임 및 부모의 애정표현이나 칭찬 등 정서적 지지의 결여와 같은 정서적 방임이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동의 비합리적 신념과 분노수준은 중간수준 정도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성별에 따라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방임행동과 비합리적 신념, 분노표현 방식과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부모의 '물리적 방임'과 '지도·감독방임', '가정환경방임'과 아동의 '과다자기기대 신념' 요인에서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남아의 경우, 부모의 '물리적방임'과 '지도·감독방임', '가정환경방임'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아에 비해 남아의 경우 가정 내에서의 기본적인 양육환경의 제공과 지도, 감독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보여주는 결과로서, 남자 아동들의 상대적인 학대와 방임, 차별적 양육의 가능성을 보고한 선행연구(기현주, 2003; 오승환, 2003; Straus, 2001)와 남아가 여아보다 학대경험이 높다는 연구결과(조옥자, 현운강, 2005)와 맥을 같이한다. 또한 비합리적 신념의 경우, 남아의 '과다자기기대 신념' 수준이 여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아가 남아보다 비합리적 신념이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김복환, 2003; 박애신, 2005; 최영숙, 2006)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정영미(2009)의 연구에서는 과잉통제, 과다회피, 과거결정론적 신념 등, 남아가 여아보다 비합리적 신념이 더 높다고 밝혀 성별에 따른 비합리적 신념의 차이에 대해서는 추후 더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부모의 방임행동, 아동의 비합리적 신념과 분노표현방식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아동이 부모의 방임수준을 높게 지각할수록 아동의 비합리적 신념인 결정론적 신념과 과잉염려회피 신념수준이 높았으며, 부모의 물리적, 인지적 방임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분노조절력은 낮아지고, 부모의 가정환경방임을 높게 지각하고 아동의 비합리적 신념 수준이 높을수록 분노를 억압하거나 분노를 표출하는 역기능적인 분노표현방식을 나타내었다. 먼저 부모의 방임행동과 비합리적 신념간의 관계를 보면, 아동이 부모의 방임을 높게 지각할수록 비합리적 신념의 '결정론적 신념'과 '과잉염려회피 신념'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부모가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취할수록 비합리적 신념형성을 저지하고, 부정적인 양육행동은 비합리적 신념형성의 기여 요인이라는 정영미(2009)의 연구결과와 관련지어 볼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전반적 방임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이 역기능적인 분노표현방식인 분노억압과 분노표출이 증가하였으며, 부모의 물리적, 인지적 방임수준은 아동의 분노조절과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적절한 양육행동의 부재로 인해 아동이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결여됨으로써 아동이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거나 혹은 부적절한 방법으로 표출하는 경향을 강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본 연구에서 부모의 지도·감독방임과 과다자기기대 신념 간에는 약한 부적상관이 나타났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모 방임의 다차원적 하위요인과 비합리적 신념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가 부재하여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에 대해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지도·감독 방임'은 아동을 혼자 두거나 자녀 혼자 있는 시간을 체크하지 않는 것으로, 본 연구대상 아동이 고학년이므로 부모의 지도·감독 방임행동이 다른 방임행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적은 가능성이 있다. 둘째, '과다자기기대 신념'의 내용을 보면, 타인으로부터의 사랑과 인정의 욕구 및 성취욕과 좌절반응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러한 자기기대가 과다할 경우에는 역기능적이라 할 수 있지만, 자신에 대한 기대를 일정수준 유지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아동의 비합리적 신념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분노억압과 분노표출이 높고, 아동의 '결정론적 신념'과 '과잉염려 회피신념'이 높을수록 아동의 분노조절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비합리적 신념이 높을수록 분노수준도 높고 분노수준이 높을수록 분노조절력은 낮아졌으며(채유경, 2001), 비합리적 신념의 요인 중 '결정론적 신념'과 '과잉염려 회피신념'이 높을수록 분노를 억압 혹은 표출한다는 선행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고경희, 2001; 용은영, 2009).

셋째, 부모의 방입행동과 비합리적 신념이 아동의 분노표현방식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먼저, 분노조절의 경우, 부모의 '물리적 방입' 과 '인지적방입' 수준이 아동의 분노조절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선행연구에서도 일반아동의 분노통제와 학대경험이 부적상관을 보이고, 학대를 경험한 아동일수록 분노 통제능력이 떨어진 다(권효정, 2006; 오진환, 2003)고 보고하여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이 아동의 분노조절과 유의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부모의 '정서적 방입' 보다 부모의 '물리적', '인지적 방입' 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난 것이다. 이것은 아동의 분노조절에 있어서 적절한 의식주와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아동의 관심에 무신경하고, 적절한 학습적 지도와 지지와 같은 인지적 방입의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가정의 물리적 환경이 부적절하고 자녀의 학습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제한적인 것 같은 부모의 물리적, 인지적 방입은 아동의 적절한 분노조절 능력의 학습에도 부정적 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가정일수록 물리적 환경이 부적절하고 부모의 시간과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이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이 요청된다. 선행연구(이봉주, 김광혁, 2007; Berger, 2005; Berger & Brooks-Gunn, 2005)에 의하면, 빈곤상황이 부모의 자녀양육능력을 떨어뜨리고 아동 학대와 방임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어 사회구조적 차원에서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다음으로, 아동의 분노억압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은 비합리적 신념인 '과잉염려회피 신념' 과 '과다자기기대 신념', 그리고 부모의 '가정환경방입' 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과 상황에 대한 과도한 불안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과잉염려회피 신념' 및 인정에 대한 욕구와 실패에 대한 과다한 좌절반응을 보이는 '과다자기기대 신념' 등 아동의 비합리적 신념이 아동의 분노억압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직접적이고 외상경험이 없어도 부모의 가정폭력을 목격하고 음주 상황에 노출되는 경험이 아동의 분노억압에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이는 부모의 방입행동과 아동의 비합리적 신념이 아동의 분노억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는 결과로서, 분노를 억제하면 우울이나 불안 등을 내면화하고 억압된 정서는 내면화된 행동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내면화된 문제행동을 보이는 집단이 비합리적 신념수준이 높다는 선행연구결과와 관련지어 볼 수 있다(이정운, 김유경, 2006). 또한 부모가 분노감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Averill, 1982), 학대를 경험한 아동일수록 분노를 억압한다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권효정, 2006). 마지막으로, 분노표출의 경우 아동의 '결정론적 신념', 부모의 '가정환경 방입', 아동의 '과잉염려회피 신념' 이 아동의 분노표출

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분노표출이란 주어진 환경에서 특정개인에게 자주 분노를 표현하는 반응으로서,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고 즉각적으로 행동화하는 경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분노표출을 예측하는 세 변인 중 과거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무력감이나 외적환경의 영향력을 높게 지각하는 '결정론적 신념' 의 영향이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부모의 '가정환경방입', 외부환경과 상황에 대한 아동의 과잉불안과 문제회피적인 신념이 아동이 외적으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결과는 Beck(2000)의 비합리적 신념은 분노표출과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연구, 서수균과 권석만(2005)의 비합리적 신념이 분노가 증폭되는 과정에 영향을 미쳐 끝내 분노가 폭발적으로 표출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 연구결과와 관련지어 볼 수 있다. 또한 아동의 비합리적 신념이 높을수록 분노표출경향이 높다는 선행연구들(김택성, 홍상황, 2008)과도 관련지어 볼 수 있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 분노억압은 과잉염려회피 신념, 분노표출은 결정론적 신념의 영향력이 가장 높았으며, 가정환경방입은 공통적으로 영향력 있는 변인이었다. 즉, 상황에 대한 지나친 걱정과 책임회피성향이 높은 아동은 분노를 억압하는 경향이 높고, 무력감과 외적환경의 영향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결정론적 신념' 을 지닌 아동은 분노를 표출하는 경향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아동이 부모의 '가정환경방입 수준' 을 높게 지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분노억압과 분노표출방식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 중 '가정환경방입' 의 예측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가정 내에서 부모가 자주 다투거나 폭력을 사용하는 장면 및 음주경험에 노출되는 것은 아동이 적절히 분노를 다룰 수 없고 화를 표출하는 역기능적인 분노표현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정 내 폭력에 대한 간접경험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에서 제시되어 왔다(권효정, 2006; 오진환, 2003; Daniel, 2000; Dubowitz, 1994). 예컨대, 가정폭력 노출 아동은 불안, 위축, 분노 등의 정서문제가 있고(Carlson, 1990; Graham-Bermann, 1996), 학대경험이 있는 아동이 분노를 표출(권효정, 2006)하고,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분노표출 정도가 더 높아(오진환, 2003) 가정폭력노출이 아동의 분노표현방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동의 적응과 생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본 연구가 질문지법을 사용하여 부모의 방입행동을 묻는 것으로서, 방입을 경험한 아동이 부모의 방입사실을 부정 혹은 왜곡하거나 솔직하게 응답

하지 않을 가능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동의 지각수준에 의해 부모의 방입수준을 파악하고 있어 연구를 일반화시키는 데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추후 연구에서는 아동의 역기능적인 분노표현방식을 줄이고 아동의 긍정적인 사고의 틀을 형성하기 위한 아동상담프로그램 및 부모교육연계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일반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의 방입행동을 아동학대의 유형이 아닌 다차원적인 요인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봄으로써 부모의 방입의 요인별 영향을 전반적으로 규명하였다. 또한 부모의 방입행동과 아동의 비합리적 신념, 분노표현방식의 관련성을 밝히기 위해 아동이 지각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아동의 정서와 사고체계에 미치는 부모의 방입의 영향을 밝혔다. 특히 부모의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습관적으로 일상화 될 수 있고, 부모의 양육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모의 방입행동이 아동의 분노표현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고경희(2001). 특성분노, 분노 표현방식과 비합리적 신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국가인권위원회(2006). **아동학대 실태조사-방입아동을 중심으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권미화(2006).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비합리적인 신념과의 관계.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권효정(2006). 아동이 지각한 학대경험과 자아조절력, 분노 표현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기현주(2004). 형제구조, 어머니의 형제대우 및 또래유능성과 형제상호작용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김문정(2003).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과 아동의 행동문제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백영(1997). 분노통제 프로그램이 부적응 아동의 분노와 공격성 감소에 미치는 효과. 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복환(2003). 초등학생의 자의식, 자기효능감 및 비합리적 신념과 발표불안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완선(1996). 부모의 정서적 학대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택성, 홍상황(2008). 분노유발사건과 분노표출과의 관계에서 특성분노와 인지적 평가자원의 매개효과. **한국임상심리학회지: 임상**, 5(3), 269-287.

박애신(2005). 중학생의 비합리적 신념, 자기존중감과 발표불안과의 관계.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박윤선(2008).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변영주(1995).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비합리적 신념 및 스트레스의 상호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보건복지부(2000). **아동학대의 실태 및 후유증 연구**. 서울: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09). **전국아동학대현황 보고서 2009년**.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서수균(2004). 분노와 관련된 인지적 요인과 그 치료적 함의.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서수균(2007). 자존감과 자기에 수준에 따른 분노사고, 신념, 분노표현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2), 327-339.

서수균, 권석만(2006). 내담자 집단의 분노와 우울수준에 따른 분노사고와 비합리적 신념의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2), 417-427.

소미강(2008).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자아존중감과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송미령(2005). 부모의 정서적 방입과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안동현, 장화정, 이영애(2000). 신고 된 아동에서 학대 후유증 연구. **보건복지부 연구개발보고서**. 서울: 보건복지부.

양미숙(2006).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비합리적 신념과 발표불안의 관계.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오승환(2003). 빈곤지역 거주 아동의 학대에 대한 생태 체계적 영향요인. **아동권리 연구**, 7(3), 451-473.

오진환(2003). 아동의 피학대 경험이 분노표현방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윤은영(2009). 아동의 비합리적 신념과 완벽주의가 분노표현 방식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윤수미(2005). 청소년의 분노 표현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봉주, 김광혁(2007). 가족빈곤과 가족구조가 아동학대와 방임에 미치는 영향. *아동권리연구*, 11(3), 333-359.
- 이재연, 홍강의, 조홍식, 이양희, 안동현, 곽영숙 외(2000). 한국의 아동학대 실태에 관한 연구. *아동권리연구*, 4, 97-112.
- 이정윤, 김유경(2006). 청소년의 내면화-외면화 문제에 따른 인지적 특성. *청소년상담연구*, 14(1), 39-48.
- 이진용(1998).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비합리적 신념간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태현(2004). 초등학교생의 우울성향, 비합리적 신념, 학교 적응의 관계. *초등상담연구*, 4(1), 223-245.
- 전경구(1991). 분노척도 개발연구. **95년 대구·경북심리학회 학습발표 논문초록자료집**, 19-32.
- 정영미(2009).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비합리적 신념의 관계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성숙(2006). 청소년의 정성에 미치는 부모-자녀 의사소통, 자아존중감 및 비합리적 신념의 효과.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조옥자, 현온강(2005).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와 방임 및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이 아동의 우울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 아동학회지*, 26(3), 141-161.
- 채유경(2001). 청소년 분노표현방식의 모델 및 조절효과 검증.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최영숙(2006). 비합리적 신념과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인영(2000). 아동학대에방과 치료를 위한 아동보호서비스 수행 방안 모색-아동학대에방센터를 중심으로. **한국복지재단**, 5-51.
- 황해현(2002). 초등학교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비합리적 신념간의 관계. 인천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황옥경(2008). 아동방임 사정 척도 개발 연구. *아동과 권리*, 12(3), 249-280.
- Averill, J. R.(1982). *Anger and aggression; An essay on emotion*. New York; Springer-Verlag.
- Beck, A. T.(2000). *Prisoner hate: The cognitive basis of anger, hostility, and violence*. New York: Perennial.
- Berger, L. M.(2005). Income, family characteristics, and physical violence toward children. *Child Abuse and Neglect*, 29, 107-133.
- Berger, L. M., & Brooks-Gunn, J.(2005). Socioeconomic status, parenting knowledge and behaviors, and perceived maltreatment of young low-birth-weight children. *Social Service Review*, June, 237-276.
- Bernard, M. F., Cronan, F.(1999). The child and adolescent scale of irrationality: Validation data and mental health correlates. *Journal of Psychology*, 13, 121-130.
- Daniel B.(2000). Judgements about parenting: What do social workers think they are doing?. *Child Abuse and Review*, 9, 91-98.
- Dapanfilis, D.(1999). Intervening with families when children are neglected. In H. Dubowitz, (Ed.), *Neglected Children*. pp. 211-236. Thousand Oaks, CA: Sage.
- Dapanfilis, D., & Dubowitz, H.(2005). Family connection: A program for preventing child neglect. *Child Maltreatment*, 10(2), 108-115.
- Deborah, A.(1999). Cognitive distortions in the experience and expression of anger. Dissertation for the degree of doctor in the adler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
- Deffenbacher, J. L., & Hogg, J. A.(1986). Irrational beliefs, depression, and anger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27, 249-252.
- DiLeonardi, J. W.(1993). Families in poverty and chronic neglect of children. *Families in Society*, 74(9), 557.
- Douglas, F. B.(1991). Anger and irrational beliefs in violent inmates. *Personality & Individual Difference*, 12, 211-214.
- Dubowitz, H.(1994). Neglecting the neglect of neglect.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9(4), 556-560.
- Dubowitz, H., Black, M., Starr, R. H., & Zuravin, S.(1993). A conceptual definition of child neglect.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0(1), 8-15.
- Goldman, J., Salus, M. K., & United States(2003). *A coordinated response to child abuse and neglect: The foundation for practice*.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Knutson, J. F., Degarmo, D. S., & Reid, J. B.(2004). Social disadvantage and neglectful parenting as precursors to the development of antisocial aggressive behavior: Testing a theoretical model. *Aggressive Behavior*, 30, 187-205.

- Lopez F. G., Thurman, C. W.(1986). A cognitive-behavioral investigate of among college student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0, 245-250.
- Slack, K. S., Hall, J., Altenbernd, L., McDaniel, M., & Stevens, A. B.(2003). Improving the measurement of child neglect for survey research and recommendations. *Child Maltreatment*, 8(2), 98-111.
- Spaccarelli, S., & Kim, S.(1995). Resilience criteria and factors associated with resilience in sexually abused girls. *Child Abuse and Neglect*, 9, 1171-1182.
- Spielberger, C. D., Krasner, E. C., & Soloman, E. P.(1988). The experience, expression and control of anger. In M. P. Janisse (Ed.), *Health and Psychology: Individual difference, stress, health and psychology*, 89-108. New York: Springer-Verlag.
- Steinberg L. D., Catalano R., & Dooley D.(1981). Economic antecedents of child abuse and neglect. *Child Development*, 51, 975-980.
- Straus, M. A.(2001). *Beating the devil out of them: Corporal punishment in American families and its effects on children*.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 Straus, M. A., Kinard, E., M., & Williams, L. M.(1995). The multidimensional neglect scale, form a: Adolescent and adult-recall version. Durham, NH: Family Research Laboratory, University of New Hampshire. Retrieved Feb. 10, 2007 from www.unh.edu/frl.
- Zwemer, W. A., & Deffenbacher, J. L.(1984). Irrational beliefs, anger and anxie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391-393.

접 수 일 : 2010년 8월 2일

심사시작일 : 2010년 8월 9일

게재확정일 : 2010년 10월 9일